

연령별 재테크 가이드 - 40대 직장인

경제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자녀 교육비가 가장 큰 고민거리다. 두 아이 사교육비만 해도 월급의 1/3 이 소요된다. 지금 돈을 모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고생할텐데... 또한 환경을 바꾸어 보고픈 마음에 이민도 고려 중이고 기회가 되면 조그만 사업이라도 해보고픈 마음도 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모아 놓은 자금을 어떻게 굴리면 좋을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얼마만큼 부지런히 살았고 착실히 돈을 모았느냐에 따라 주변사람들과 서서히 차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더 조급해지기도 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자산이 모이는 시기이기도 하고 본격적으로 재테크가 위력을 발휘할 때이기도 합니다.

먼저 새는 돈을 막아야 합니다. 주식에 무리하게 투자해서 모아 온 돈을 일시에 날릴 수도 있고, 빚 보증을 잘못 서 하루아침에 가산을 탕진할 수도 있습니다. 불리는 것 보다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또한 이제는 시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산 포트폴리오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의미로 후순위채권, 부동산신탁 등 틈새상품에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기간을 조금 길게 잡아도 좋습니다. 조만간 큰 자금 수요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자신에 대한 투자를 늘리세요. 자기계발은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여기에는 건강도 포함됩니다. 보장성 보험상품을 통해 40대 위험기를 대비할 수도 있고 또한 개인연금 불입액을 늘려가면서 본

격적인 노후 준비를 시작할 때이기도 합니다.

▶ 내 집 마련시

“전세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이번에는 인상분을 월세로 달라구? 가지고 있는 돈으로 새 전세 구하기도 마땅찮고... 2년마다 이런 고민 정말 지겹다. 이젠 아이들 학교때문에 이사 다니기도 쉽지 않은데... 하루 빨리 내집을 마련해서 두발 뺏고 정착해야 할텐데...”

이처럼 내집마련은 많은 사람들의 당면과제이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집을 늘려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파트 분양정보나 청약예금에 관한 정보, 분양권에 관한 정보 등 신뢰할만한 정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매매나 분양신청시 주의해야할 내용들이 무엇인지도 중요하지요.

내집마련을 자기 돈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전세보증금을 올려주느니 대출을 받아 아예 사버릴 수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금리 인하경쟁이 한참인 요즘, 저렴한 이자율과 많은 부대서비스를 누리면서 품위있게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나 성업공사의 경공매물 건만을 위한 대출상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 부동산 투자시

새천년이 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모든 패러다임

이 변화하였습니다. IMF 이후 금융시장의 모든 장벽이 일시에 사라져 버려 첨단 투자기법으로 무장한 외국인들이 내국인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그 여파는 부동산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어 근본적인 시장의 변화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재테크 기준도 급격히 변화하였습니다. 정확한 분석과 합리적인 투자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투자는 성공할수 없습니다. 집이 내 전 재산이라는 고정관념은 이미 사라져 버렸고 신세대가 주장하고 있는 주거공간의 생활필수품이라는 개념이 주택에 대한 새로운 정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의식의 변화는 곧바로 재테크의 변화로 이어져 부동산시장에서는 임대사업이 활성화되고 또 간접투자상품으로서 부동산 뮤추얼펀드라고 하는 리츠(Reits)가 등장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기존주택의 리모델링과 전원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굳이 청약에 하지 않고 분양권 매입으로 청약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수도 있고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된 인터넷을 통하여 부동산경매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따라잡는 것이야말로 부동산재테크성공의 지름길입니다.

부동산은 주식 등의 다른 재테크수단과는 달리 환금성과 세금에서 자유롭지 못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성공한 부동산재테크는 다른 재테크와는 비교할수 없는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제 eMoney와 함께 매력만점의 부동산 재테크의 세계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 자녀 교육비 마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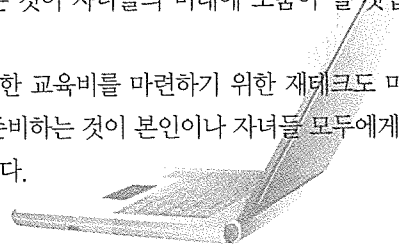
요즘 아이들을 키우려면, 교육비가 만만치 않다. 웬만큼 교육시켜서는 자식들한테 좋은 부모소리 듣기는 틀렸다. 애들이 노는 것보다 학원다니는 친구를 부러워하다니, 정말 세상이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 같다. 더구나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자기가 벌어서 다니게 할 수는 없을까? 빨리 자립심을 키워 주어야지...

요즘 들어 교육이민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많이 접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많은 돈과 정성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통계상으로도 도시가구의 경우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이 주택마련 관련이고, 그 다음으로 상당부분이 자녀들의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남들만큼 가르치지 않고 살려고 하니 내자식이 처지는 것 같고, 남들만큼 하려니 소득이 모자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일반적인 교육만 가지고는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학교육의 경우 교육비가 너무 비싸서 대출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무계획하게 돈을 모으거나, 대출을 받는 것은 너무 무모한 행동입니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저축과 대출은 당신의 경제생활을 보다 더 여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비는 스스로 모으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축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가르치고, 자신의 교육비도 일정부분 책임지게 하는 것이 자녀들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한 재테크도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이 본인이나 자녀들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귀여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 주식에 처음 투자시

매일보는 뉴스에서도, 신문에서도 주식 얘기는 빠지지 않고 옆집에 사는 길동이네도, 회사의 김 대리나 미스박도 주식으로 용돈을 벌어 쓴다고 하는데 웬지 주식투자는 쌈지돈을 까먹는 것 같아서 멀리 했지만 이젠 주식을 빼면 어디서든지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다. 주식투자를 배우도 보구 싶구, 정말 투자해서 수익도 올리구 싶은데... 누가 가르쳐 주지 않나?

주식투자!

양날의 칼과 같아서 고수익의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원금도 까먹을 수 있는 위험부담이 큰 투자 방법입니다.

그러나 주식투자를 하게 되면 경제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아지게 되고, 도박성향의 투기가 아닌 과학적인 정석투자를 한다면 은행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처음 배우는 주식투자는 욕심부리지 말고 주머니 속의 작은 쌈지돈으로 시작하여 경제의 흐름을 배우고 투자하는 방법을 배우다는 자세로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주식투자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원금을 날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투자자금을 대출 받는다거나, 아파트 살려고 준비한 돈을 잠시 활용한다거나 하는 것은 큰 낭패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식투자 자금은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자기 돈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식투자는 확정금리를 받거나 원금을 까먹지 않는 실적에 따른 배당을 받는 안전한 투자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식투자는 공부를 많이 하여야

하며 체계적인 학습을 통하여 익힌 과학적인 투자 방법으로 하여야만 실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배운 투자방법을 통하여 자신만의 투자 기술을 익혀야지만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의 기초를 배우시고 소액투자로 실전 통한 투자기술 익히기를 해 보십시오.

▶ 여유자금 활용시

내게 얼마간의 여유자금이 있는데, 어디에 투자해야할 지 모르겠다. 부동산이나 채권을 하기에는 돈이 작고, 주식에 투자하기에는 위험이 크다. 그럼 주식형펀드나 단위형신탁에나 넣어 볼까? 몇 군데 나누어 투자하는 것은 어떨까?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셨습니까?

여유자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고 부터는 본격적인 재테크가 시작 됩니다.

모인 목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한번씩은 고민해 보셨겠지요?

주식에 한번 투자해 볼까? 부동산에 한번 투자해볼까? 등등의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아주 힘들게 모은 돈이 아니던가요?

이런 귀한 돈을 계획 없이 운용 하실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여유자금 재테크 누구나 쉽게 나도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여기지만, 많은 금융기관과 상품들 중에 나에게 맞는 상품은 과연 무엇인지 선택하기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여유 자금을 투자할지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 고민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자! 나의 돈은 내가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부터 시작해볼까요?

여유자금의 투자 포트폴리오와 함께 적극적인

재테크 전략을 세워 보시지요.

▶ 노후 준비시

노후라는 말만 들어도 웬지 두렵다. 늙게 되면 변변한 수입도 없을 것 아닌가. 또한 인간의 평균 수명은 늘어만 간다던데, 자식들에게 내 노후를 책임 지우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 싶다. 과연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몇 년 전 서울 모 여대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가 결혼해서 살고 싶은 스위트 홈」의 구조를 그려보라는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침실, 의상실, 거실, 아이들 방 심지어 장난감아 개밥그릇까지 그려 놓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부모님이 계실 방은 그리지 않았습니다. 즉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모시게 되면 모실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나의 스위트 홈 설계에는 부모님이 안중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식 농사만 잘 지으면 자신의 노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지요. 그러나 현대는 다릅니다. 오죽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모를 공양하는 마지막 세대이며, 자식에게 버림받는 최초의 세대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또한 능력이 없으면 부모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우리의 노후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있을까요? 손자 손녀에게 용돈도 마음대로 주며 한가롭게 노후를 즐기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식들에게 용돈이나 타서 쓰면서 가끔씩 사는 것이 부담스럽다?

고 한탄하고 있는 모습일까요?

▶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서 담보하는 질병에 대한 위험은 크게 사망, 발병, 입원, 수술, 통원, 요양, 개호(장기간병)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생로병사와 맥을 같이한다 하겠습니다. 즉, 사람이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다치고 사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현대감각으로 나열한 것과 같습니다. 이들 위험들은 경제생활의 존속을 어렵게 하거나 최소한의 경제생활을 존속케 하기 위한 추가비용을 발생시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상품(특히 생명보험상품)이 사망을 기본적으로 담보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사망 중에서도 암사망, 뇌졸중사망 등 특정한 사망만을 담보하거나 사망에 대한 담보를 아예 없애고 치료비만을 중점 보장하는 제3분야보험(질병보험, 개호보험)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보험들은 모두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이라는 면에서는 일맥상통하지만, 제3분야보험의 경우 사망에 대한 보장을 축소시키거나 없앴 만큼 보험료는 대개 저렴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개호(흔히 말하는 치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상품도 개발되고 있으며, 개호라는 병의 특성상 실버타운 등과 연계되는 서비스도 한창 개발중입니다.

[인터넷 출처] ◀

